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9강,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1-9 서론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도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9강, 고린도전서 1:1-9에 대한 바울의 서신 서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1:11, 5:1, 7:1과 같은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책의 본문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세 개의 주요 섹션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1에서 16까지에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기록한 질문과 이슈에 응답하면서, 이제 이것에 관하여 또는 이제 저것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그 구성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주요 이슈와 질문에 체크 표시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의 실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트패드 6번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 50~5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은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만, 제 페이지는 빠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을 때까지는 수정되었을 겁니다. 그 페이지에 50, 51, 52라고 쓰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어 본문을 공부한다면, 그것도 있으면 편리할 겁니다. 50페이지에서 신약성서 서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모든 저술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외일 것입니다. 그것은 편지 형식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편지로 썼습니다.

로마서에도 편지 장르가 있는데, 로마서가 구성된 방식은 일반적인 편지와 약간 다르며, 특히 편지의 본문과 바울이 묘사하는 논리 면에서 다릅니다. 이제 신약의 편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편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신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번역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에 가깝습니다. 사실, 서간은 실제로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어 단어 *epistole* 의 음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그리스어 단어의 글자와 영어 글자를 합치면 *epistole*이라는 실제 단어인 *epistle*이 나옵니다. 하지만 *epistole*을 번역하면 *letter*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확실히 긴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로마 문자 형식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표면 자료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많은 편지들이 꽤 짧았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2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신약성서는 일관되게 *epistol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용어의 영문 음역을 보여드렸고, 이와 같은 서면 서신을 지칭합니다. 저는 여러 본문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성경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심지어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항상 편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된 편지이지만, 음역된 서신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 고착된 단어입니다. 고대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신약 서신은 이 서신 장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어를 전에 사용했지만, 장르라는 단어가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장르라는 단어는 일종의 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는 시적 장르입니다. 즉, 그 형식은 일종의 문학입니다.

속담은 장르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학입니다. 서사는 장르입니다. 서신은 장르입니다. 묵시록은 장르입니다. 복음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장르, 많은 종류의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은 장르의 관점에서 의미하며, 편지의 장르는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의 팔을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르는 우리가 가끔씩 쓰는 문학이라고 부르는 서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지는 작가가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의 풀을 공유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풀을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그 풀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일어난 방식이었고, 그런 다음 2,000년 후에 우리는 이 편지들을 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 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풀을 가지고 있고, 위험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가져다가 우리 풀에 넣고, 비유를 따라가며, 그들이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수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주요 맥락은 그들이 본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가끔의 문학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러한 편지 중 하나를 읽을 때 전화의 한쪽 끝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방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예를 조금 전에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선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헌의 완전성 측면에서 나머지 절반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단은 의미를 내지만, 동시에 그들은 원래 쓰여진 맥락의 관점에서

의미를 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화의 다른 쪽 끝에 대해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방식은 무엇이였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 방식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텍스트에서 뉘앙스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편지로서, 고대 기준에 따르면, 이 편지들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사전에서, 성경 해석자 사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Anchor Bible Dictionary가 있다면, letter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epistle을 검색하면 두 가지를 교차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세기의 편지 형식에는 특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편지에는 서론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인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 이상입니다. 그것은 소개입니다. 그것은 인사를 포함합니다. 소개에는 보낸 사람, 수신인 또는 수신인들의 식별이 포함됩니다.

인사의 표현. 보통은 받는 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약성서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에 대한 무언가가 있고, 서문, 인사말, 서론에 포함된 작가에 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대부분 비교적 간략한 몇 구절 후에, 우리는 편지의 본문이라고 알려진 것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보가 포함됩니다.

요한2서나 요한3서처럼 짧더라도 너무 짧아서 장으로 구분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와 빌레몬서는 모두 서신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론과 인사말이 있고 본문이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거대한 본문이고 길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배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중간에 있어요. 그것이 그 편지의 본문이에요.

그런 다음 결론이나 마무리가 있습니다. 편지의 마무리에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작가가 편지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광입니다.

이런 마무리 중 일부는 꽤 길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고, 글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의 핵심을 정말 이해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소홀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작가의 개인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개인 이름,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묘사하는 활동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 다시 한 번 소원, 마지막 인사 또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데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서신, 세속 서신은 날짜로 끝납니다. 사도들이 서신 장르의 그 측면을 따라 이 서신들 각각에 날짜를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편지의 날짜를 비교적 면밀하게 재구성했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이 그냥 이 형식을 최대한 따르고 우리를 위한 날짜를 포함했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서론, 본문 또는 편지의 본문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50페이지에서 신약 시대와 비교적 동시대의 세속 편지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쓴 편지가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라피온이 그의 형제 프톨레마이오스 와 아폴로니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좋은 경제적인 조건이 맞죠? 저는 파리의 딸과 계약을 맺었고 이번 달에 미주리에서 그녀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오일의 반 에토스나 오일의 반 코러스를 보내주세요.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8년. 21월 또는 21일. 그 다음에는 월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일이 온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결혼식 날 오세요. 아폴로니우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우 짧은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서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서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Doty에게서 가져온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제 이 편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세요. 첫째, 이 편지는 편지의 작성자를 세라피온으로 식별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경우 제 가정은 이들이 진짜 형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동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편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와 아폴로니오스 에게 쓴 글이에요 . 그리고 인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사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인사말은 편지 양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서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훌륭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글썄요, 웰빙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일부가 선함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동안 계속됩니다.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럼 결론이 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짜와 함께. 덧붙여 생각해낸 것. 결혼식 날을 위해 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폴로니우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말이라는 용어는 이 편지에서 사용되고, 우리는 신약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얻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이제, 인사말은 그리스어 *kairein*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

아래 문단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표준 그리스어 인사말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이런 인사말이 세 개 있습니다.

행전 15장과 23장에서 서신이 주고받는 동안 그들은 카이레인을 용어로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우리 신약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가정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표준 그리스-로마 문자 형식을 따릅니다.

*kairei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기독교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요? 글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모든 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형식에서 *kairein* 입니다 . 그것이 인사입니다.

그는 기독교화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은혜, 자비, 평화입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은혜와 평화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개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

kairein , eirein , 여성 이름에 대한 Irene이라는 단어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Eirein , 은혜와 평화. 현재 구약성경과 구약성경 이외의 유대인 서신은 종종 kairein 이라는 단어 대신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에스라 4장에서, 저는 여기서 변화를 위해 NRSV에서 읽을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에 있습니다. 왕은 라흠 , 왕의 대리인, 심시 , 서기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 너머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NRSV 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주목하세요. 인사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에즈라는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이 고대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에스라 5:7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께, 모든 평화가 왕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인사를 하는 대신, 약간 너무 친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평화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은 살롬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원이었겠지만, 인사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이 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 정경이나 신약 정경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책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마카비 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NRSV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NIV를 사용하는데, 그저 편리하고, 좀 더 쉽게 펼쳐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RSV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RSV가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일부 구약 중간 시대의 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 유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 생산된 문헌과 그 이후 1세기에 생산된 문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카비는 4권입니다. 여기서는 2권만 볼 수 있습니다.

RSV는 그 문헌의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구약성서 외경과 위경 문헌이 두 권 있습니다. 신약성서 외경과 위경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 성경 밖에 많은 문헌이 있습니다. RSV는 역사적 목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심지어 그리스어로 구약성경을 작업하면서 칠십인역과 다른 곳에서 그것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카비서 2장 1절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이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친족에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글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팔레스타인에서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야. 딱히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 바위가 너무 많았거든.

그리고 양 떼를 먹일 수 있는 시기는 일년 중 특정 시기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집트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내려가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성서의 가부장적 가족에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소포타미아까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유대인 친족들에게 인사와 진정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오고, 마카비는 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인사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유대인의 글입니다. 유대인 글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샬롬은 모든 좋은 일이 당신에게 있기를 의미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좋은 소원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와 공식적인 편지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가면 아리스토틀레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10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원로원과 유다가 아리스토틀레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리스토틀레스는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스승이며, 이집트의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한 번, 이집트입니다.

인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이제 에즈라에서 건강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기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곳 모두에서 인사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초기 인사말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Kyrene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E irene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개념. 그래서 고대 문자에서 우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전자 시대에 이런 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메일을 쓸 때,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친애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글썬, 그게 우리의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세계에서 편지를 쓸 때, 특히 영어권에서 쓰는 양식이었습니다. Dear so-and-so.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편지를 Sincerely 로 끝맺고, 편지에 서명했습니다.

글쎄요, 편지는 수세기, 수천 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봅니다: 마카비서 2장 1절과 1장 10절. 이제 고린도전서도 1세기 편지 패턴을 따릅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9, 5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본문은 1:10부터 16:18까지인데, 거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16장 19절에서 책의 끝까지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익숙한 형식을 따릅니다. 이러한 형식은 문학 장르의 일부입니다

글자는 장르이지만, 그 조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특정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약성서에는 글자 장르가 깨진 흥미로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전형적인 인사, 전형적인 감사의 말, 전형적인 기도가 없는 책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누가 당신을 홀렸습니까? 와! 당신은 의례를 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때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 회중의 얼굴을 때렸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회중에게 그것을 읽어줄 때, 아무런 의례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홀렸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표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표준은 소개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9을 살펴보고 그것이 편지 서두의 패턴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보낸 사람의 신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자인 바울과 소스테네는 이 글의 내재적 내용입니다.

바울과 소스테네. 소스테네는 동료입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때로는 한 명 이상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좀 흥미로운 일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소스테네. 바울은 측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그 일부였습니다. 소스테네도 그 일부였습니다. 그가 신약에서 실제로 언급된 유일한 곳입니다.

소스테네스가 누구였을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석에 있는 방대한 세부 사항에서 그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공동체 저작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과 내 형제 소스테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역 공동체입니다. 저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스테네스가 바울의 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듣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 받아쓰기를 하고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적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의 시대에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자기가 없었습니다. 농담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테이블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받아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쓴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인사나 때로는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편지의 마무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폴의 측근. 폴을 생각하면 엄숙한 사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설교한 사람이 창문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부활해야 했습니다. 그의 면전에서 매우 강력한 사람. 하지만 신약을 읽어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때때로 의견 불일치를 겪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로마서가 그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이 그에게 못되게 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서신 문학에서 제자보다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꺼안고 싶어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렇게 했으며, 개인을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서신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두세 번 나오는 '배우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명사는 서신 시대와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신 자체를 쓰는 것은 제자라는 은유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라는 은유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견습생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습생이 되고 마치 폴을 위해 그리고 폴과 함께 일하는 것에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폴은 많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료 노동자.

그는 동전을 던진다. 글썄, 그냥 내가 노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동료 노동자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공동체로 본다.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징후를 주의하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데네.

더욱이 우리는 수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 정체성은 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들의 영적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들의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먼저 둡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린도인들과의 관계의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읽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미묘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거의 부정직하게 만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는 진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신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아주 착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에게.

그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 단어를 법의학적 사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능적 사실 이상입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포렌식은 법적 측면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학적 지위입니다. 그것은 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 구절이 법의학보다 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능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학적 측면에서는 성화가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성화됩니다. 피터슨이 말했듯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세요.

따라서 우리는 많은 부담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풀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큰 그림과 종합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에 있는 모든 용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주님이자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해석학의 한 원리는 의미에 대한 창문으로서 반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서론을 비교하여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 한, 서론에서 반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공통 분모와 단절되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이 초기 구절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반복이 의미로 들어가는 창이라면, 바울이 왜 주님, 주님, 주님을 계속 강조할까요? 글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단언하기는 좀 위태롭지만, 서신의 후반부에서 예수께서 이 고린도인 중 일부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약간 생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머리에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그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약간씩 주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받았고, 그들의 기업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교회라는 용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grace kairene, xaris, 실례합니다, greeting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grace라는 단어가 있는데, Paris이고, Eirene은 pea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grace와 peace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두 용어는 모두 견고한 기독교 용어이고, 솔직히 말해서, 유대교적 사고방식에도 매우 견고합니다. 사실, 평화라는 단어는 특히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바울이 인사를 단순한 인사가 아닌 종교적 진술로 바꾸었을 때, 그가 사용하지 않는 인사를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을까? 바울은 유대인이었다. 그저 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잘 훈련된 유대인이었다.

그는 아마도 바리새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기독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는 기독교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 지배적인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공동체를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본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합창의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도요.

글쎄요, 그것은 유대인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인사말에서 기독교와 유대인의 명칭이 합쳐지는 거죠. 정말 멋진 일이죠.

폴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에게서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성서에서 여러 용어가 문맥을 포착하기 위해 인사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그의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주요 인사말 중 하나입니다.

인사하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음, 영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두 가지를 말할 거라면 왜 세 가지를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진지하지 않나요? 음,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영의 삼위일체의 인격이나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은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고, 저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고, 여기서 일부만 발견하고, 여기서 전부를 발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친구 여러분, 신격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작가들은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자리 끝자락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와 아버지 사이의 권위와 연결. 이제, 누군가는 성급하게 말하고, 글쎄요, 그가 영을 언급하지 않은 건 12장에서 14장까지 영적 은사를 볼 때 영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어떻게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글썄요,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의 번역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모든 번역에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에서는 주님이 먼저 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큰 총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다음 4절에서 9절까지 감사의 진술이 있습니다. 세속 문학과 구약에서 이미 읽은 전형적인 서신을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바울의 서신 대부분에 있는 것만큼 긴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론은 보통 꽤 길고, 그것은 다가올 내용의 본질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는 청중에게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필자들, 특히 바울의 서신 인사에서 특히 지배적인 용어 중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세속적인 편지에서 필자는 수신자가 건강하고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글썄요, 바울은 거의 항상 자신이 말하고 있는 청중과 관련하여 자신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저는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폴이 여기서 시작한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절부터 9절까지를 감사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사절의 진술입니다. 51페이지의 개요를 보세요.

감사의 진술은 4절에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5~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확신은 8~9절에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면, 3가지 요점의 설교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 를 얻게 해 주세요 . 나는 여기서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것으로 되돌리게 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4절). 나는 여기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몇 가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기 그의 진술에서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5절에서 계속합니다. 당신은 그 면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유해졌고 5절에서 나는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문제였습니다.

저는 집중을 잘 못해요. 실례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세 쌍의 안경을 세 세트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독서는 글자가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것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4절, 5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온갖 것으로? 말로요.

그리고 무엇으로? 지식. 오, 흥미롭군요. 당신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신에 의해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냥 7절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확증하십니다.

여기서 함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성격이 우리의 일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적 은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앗, 그게 뭐예요? 여기서 메아리가 들리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메아리입니다. 말과 지식과 영적 은사.

그리고 당신은 영적 은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그는 또한 감사절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 무엇? 우리 주님. 주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제, 이 인사말에 대한 요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후 사전 독서에서, 제 마음은 어느 정도 가득 차 있고 세부 사항으로 거의 어수선합니다. 주석은 때때로 이런 구절에 대해 15 페이지를 할애하여 모든 뉘앙스와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의 연결을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엿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선택적인 관찰.

우선, 작가의 서론은 그 뒤를 이을 편지의 본문을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편지와 관련하여 인사를 연구하면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인사가 없는 것이 그 본문을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다음 요점. 1-4는 좋은 관심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라틴어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인사에서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들을 머리 위로 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폴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폴은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츠마이어는 작가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는 의미의 말을 했고,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린도 청중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들떠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문맥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울과 고린도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오고 갑니다.

기억하세요, 사실 이것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일이 앞뒤로 오갑니다. 구전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뻐하지 않는 몇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공개적으로 읽히고 그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았고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말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활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니요, 아니요, 그는 편지 형식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세요. 어렵더라도 말하세요. 그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종종 그렇듯이 강점이 있는 곳에서 약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약점에 대해 진실된 말을 하고, 약점을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이 범주에 대해 조금 작업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인사에서 그는 청중을 위한 기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진술합니다. 글썬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또 다른 것은 그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를 위해 내 신에게 감사합니다.

폴이 쓴 인사말에서 추수감사절이 주요 범주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이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우리는 몇 가지 트리거를 볼 수 있고, 청중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리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거기에 앉아 꽤 기분이 좋습니다. 폴이 마침내 깨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그가 그들에게 이것을 떠올리게 해서 기쁩니다.

세 번째 글머리. 이 9절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었습니다. 2, 3, 7, 8, 9절에서 5번 사용되었습니다.

반복입니다. 이제, 때때로 인사에서 우리는 신의 이름을 반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두드러지고, 저는 그가 그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5-7의 마지막 글머리 기호에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감사한 이유는 그가 나중에 비판할 범주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52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1:5에서 그들은 말과 지식으로 풍부해졌습니다.

우리는 혀, 말, 지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이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1:7에서, 그 결과는 그들이 여기 7절에서 모든 종류의 은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적 은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카리스마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 없습니다. 그것은 번역입니다.

문자 그대로 영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 카리스마타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선물로 번역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영적 선물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부금입니다. 모든 기부금에서.

이제 제게 어느 정도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모든 영적 은사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7절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재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기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 영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2011 NIV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보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영적 은사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카리스마타라 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용어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궁금할 뿐이고, 아마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NRSV에서 1:7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단어, 영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카리스마타를 영적 은사의 그런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Charismata는 xaris 와 같은 가족에서 나옵니다 . 은혜라는 단어에서.

당신은 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 번역은 유효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번역에 형용사가 실제로 쓰여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1.9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제나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여러분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 연구에 흥미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어의 번역어입니다.

실제로 koinonia라는 이름의 일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문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종종 fellowship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를 코이네 그리스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네 코이노니아 코이네 그리스어는 무엇인가요? 코이네 그리스어는 일반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살고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고전 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코이네 그리스어 화자였습니다.

공통. 코이노니아. 우리는 그 교제를 번역하고, 그런 다음 교제라는 용어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짐을 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침례교 만찬. 일요일 밤에 모여서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즐기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우리 문화에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은 그의 아들의 교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공동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공동체의 의미에서 공유로서의 교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것,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고, 이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성취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공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접하면, 교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고, 요한 문학에 들어가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특히 요한 1서에서 이 단어는 정말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교제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제는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우리는 아들과 교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과 공유하며, 신이 제공한 구원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교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이라는 지루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목표, 과제를 공유합니다. 신약에서 코이노니아는 공유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교제에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 , 또는 구원의 산물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이 고린도인들이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교제, 영생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쓰여졌습니다.

사본이 도착하자, 지역 사회가 모였고, 그들 중 한 명, 아마도 장로이거나 구술 낭송을 읽는 데 특히 능숙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정보를 얻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으지 않았고, 사본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경청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맥락의 구술성에 대해 말할 것이 많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작가가 쓴 어떤 행사에 기반을 두었고, 그저 약간 반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규모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체가 한 장소에 모였거나, 사실 한 번에 모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할 때, 이 특정 상황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이 독특함이 바울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 연합을 호소한 것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지리적으로 다양화된 교회가 하나 있지만,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 이 편지는 아마도 이 개별 회중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번에 한곳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작더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전역에 셀에 모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ekklesia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 이는 어원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원은 단어의 조각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러나온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집회입니다. 교회로 번역된 이 용어, 에클레시아 는 이스라엘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 였습니다. 그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은세공인과 다른 사람들과 같은 1세기의 무역, 길드, 노동조합은 에클레시아 라고 불립니다 .

그들은 특정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길드,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서신적 맥락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집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첨탑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1세기 기독교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

이 서론을 듣고,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한 번에 읽을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바울이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흥미롭지 않나요?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넘쳐났을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원이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치 풀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돌이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 혹은 돌아올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당신에 대한 이런 좋은 말을 다 할 거야. 흥미로운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디오 리플레이를 몇 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알아내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구절이 있지만, 저는 그 책의 이 특정 부분을 발효시킬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구절입니다. 바울, 부름받은 사도.

그저 어떤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제 저는 Decision Making God's Way, A New Model for Knowing God's Will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인쇄된 품목을 찾을 수 있지만, 라고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스에서 책을 구하려면 라고스 프로그램 전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신다면요. 이 책은 Logos에서 두 언어로 제공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의 목덜미를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완고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폴, 나는 너에게 내게 어떤 위대한 일들이 닥칠지 보여줄 것이다. 그날부터 폴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손을 내밀어 바울을 붙잡아 그 면에서 사역에 투입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맨 처음에 그 사실을 확립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4장까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바울의 자격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풀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확실한 용어로 말합니다. 글썄요, 이건 제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만들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12명이 미리 준비된 방식으로 와서 질문을 주고받는 교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말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많은 자료를 다룰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 연설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에게 특정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 자료가 놓인 맥락 내에서 말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당장은 좋은 주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9강, 고린도전서 1:1-9에 대한 바울의 서신 서론입니다.